



기존 인근 도시와 상생해야 성공 7월 공청회 거쳐 8월 후보지 확정

강용식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

참여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오는 8월까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얼마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가 발족한데 이어 지난 6월 8일에는 자문위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 겸 자문위원장에 내정된 강용식 위원장은 「열린충남」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충청권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 겸 자문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역사에 남을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소감은?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도시공학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계하신 분들은 물론 전 국민이 공청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

▶지난해 말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건설이 참여정부 임기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는 충청인도 적지않은데?

-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실천 의지는 강하다. 지방살리기,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역사를 이루려는 남다른 의지가 강하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믿는다. 일부 서울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는 하나 모든 것은 국가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에서 입지지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다. 또 입지결정과 관련해 평가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 평가위원회는 법적기구 아니지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대상 후보지에 대한 조사내용과 지난해 전국 순회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입지기준을 비교 평가해 후보지를 도출하는 기구다. 추진위는 평가위가 도출한 자료를 가지고 자체 검증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예정지를 확정한다.

▶최근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 및 인원과 기능은 무엇인가? 지역자문

위원회에서는 입지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자문을 하게 되나?

- 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초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됐다. 충청권 3개 시도 지역자문위원 30명, 전문자문위원 70명 등 100명선으로 구성했다.

▶입지기준과 관련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이 적은 지역에서 최근에는 다시 시가지 경계로부터 대전 청주 천안은 5km 이내, 공주는 2km 이내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제외 지역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 그렇지 않다. 기존 시가지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를 제한하는 것은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발가능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기존도시와의 연담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시가지는 시구역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오해없길 바라며, 아울러 해안선과 중요군사시설로부터도 일정거리 이내 지역은 제외키로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내년도 예산 반영계획인 사업은 무엇이며, 그 규모는?

- 내년도 예산은 우선 개발계획수립과 관련 71억원, 청사건축 기본설계비 46억원 등 총 1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가기관이전과 관련 행정부의 이전대상기관과 헌법기관의 이전대상기관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 행정기관이전은 대통령 결정사항으로 74개 기관이며, 헌법기관은 국회 등 10개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신행정수도에는 입법부, 사법부가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주요국가기관이전 공청회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면 추진위에서 조만간 주요 국가기관이전계획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입지선정과 관련, 몇몇 거론되는 후보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노골적인 반대여론이 나오고 있다. 입지 거주민의 대체주거 확보 등 이주대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로서는 보상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이전요구가 정식으로 추진위에 접수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입지와 관련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당부말은?

- 우선 오는 6월 하순경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도출할 계획이다. 7월에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 8월 최종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까지의 예정지에 대한 세목조사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심포지움 개최
5월 7일 오후 3시 천안시민회관 소강당
권용우교수(성신여대),
김두규교수(우석대) 주제발표

충남발전연구원은 2004년 5월 7일(금) 오후 3시 천안시민회관에서 신행정수도 관련 정기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국토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날 세미나는 신행정수도 건설 관계자, 유관기관, 학계, 관련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국토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입지의 조건을 모색하고 풍수지리와 신행정수도의 연관성을 논의한 자리로 권용우교수(성신여대교수, 경실련 수도권포럼 대표)등 2명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김용웅교수(충남발전연구원 자문위원) 등 9명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